

마포구시설관리공단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공공기관 최초 협약 체결

ESG 공시·지속가능경영 등 정부지원 교육 통해 임직원 전문성 강화 기대

2026-06-10 오후 1:34:15

마포타임즈 ✉ mapodesk@hanmail.net

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직무대행 황진택)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‘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’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. 한국경영인증원과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는 동 센터가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그동안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센터에 공공기관이 협약기업으로 참여함에 따라, 공단은 공공부문의 선제적 ESG 역량 강화 사례를 구축하게 됐다. 이번 협약으로 공단 임직원은 ESG·지속가능경영, 탄소중립,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정부 지원으로 이수할 수 있다.

이번 협약은 ESG 공시 의무화 등 관련 정책 본격화에 발맞춰 지방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임직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. 아울러 기존 외부 위탁교육을 정부지원 과정으로 전환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.

공동훈련센터는 1~2개월 단위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, 올해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환경 분야 실무과정이 진행됐다. 공단은 오는 6월 12일 개설되는 ‘ESG 공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실무’ 과정에 우선 참여할 계획이다.

황진택 이사장 직무대행은 “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의 공공기관 첫 협약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”라며 “임직원의 ESG 실무 역량을 내실 있게 키우고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공고히 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공단은 협약 기간인 2029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참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<저작권자©마포타임즈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 2026-06-10 13:34 송고

<http://www.mapotimes.co.kr/news.aspx/402681>